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시단
한국계육협회 (Korea Broiler Council)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이재하 · 김태은
(우 137-0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52-6(남도빌딩 601호)
☎ (02)536-9855 ~ 6 FAX (02)595-6028
기획편집 : 민지미디어 ☎ (02)263-3598

제4권 제8호 통권38호

8

1998

성공 육계 사육 10계명

- 육계 사육에 왕도는 없다. 비육위주의 사업이므로 병아리, 사료, 환경의 3박자가 맞아야 된다. 사양관리중 중요한 내용들을 10항목으로 점검해 본다.-

1. 계절변화를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다. 계절에 따라 사양환경이 당연히 변화한다. 닭은 온도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가축이며 온도에 따라 사료섭취량도 변하고 유지에너지와 생산에 쓰이는 에너지도 크게 달라진다. 지붕의 경사도는 30~40°를 유지시키고 환기구는 닭의 수용능력과 출하체중을 계산하여 팬을 설치해 준다. 단열계수를 높이기 위해 우레탄을 보온덮개 위에 뿐려줘도 좋다. (R 계수, 지붕 = 12)

2. 육추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약 40일 기간 중 첫 일주일의 관리가 전체 성적을 좌우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생존율을 높이고 사료섭취에 적응이 잘 되도록 환기와 온도·습도·사육면적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 특히 초이사료는 반드시 섭취시켜서 난황의 소화와 함께, 기초적인 균골발달의 토대를 만들어 줘야한다.

3. 면모추 발달에 따라 온도를 조절한다.

머리에 작은 솜털들이 빠지기 전에 온도를 낮춰주면 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면역기능이 저하된다. 2~3주 사이에 면모추가 환우되므로 계절의 온도에 따라 온도 조절 날짜는 조정되어야 한다. 연중 똑같은 프로그램 적용은 오히려 해롭다.

4. 계사 내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한다.

사료 요구율이 매우 개량된 육계들은 성장이 빠른 만큼 체내에서 산소 요구량이 매우 높다. 계사내 바닥에서 올라오는 유해가스와 호흡에서 나온 이산화탄소, 유후기의 불완전연소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들은 즉시 환기되어져야만 닭의 성장능력을 해치지 않는다.

5. 깔짚을 제대로 사용한다.

육추시 습도와 환기가 65~70%가 되도록 해주고 최소한 10cm이상이 되도록 깔짚을 깔아야 한다. 연중

사용하는 깔짚의 경우 경제성은 인정되기도 하지만 수분 흡수력이나 가스 발생력등이 도체 품질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매번 교체하는 것이 좋다.

6.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

닭의 항상성(Homostasis)이 유지되지 못하게 하는 내·외부 모든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이다. 안전성이 흔들리면 사료섭취·음수량이 감소되고 체내에서도 호르몬의 분비와 심장 박동수, 대사기능의 항진 등이 활발해져서 결국 에너지의 낭비가 뒤따르게 된다. 최고의 스트레스는 사육면적의 부족, 즉 과밀사육이다.

7. 물을 충분히, 제대로 주어야 한다.

계육의 70~75%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대사 기능 과정 중에 필요로 하는 호흡, 체온조절, 노폐물 운반, 영양소 형성 등 모든 생리현상의 기초물질이다. 급수기 숫자와 자동급이기, 섭취정도가 농장의 성적을 좌우한다.

8. 열사병을 주의한다.

사계절 중 하절기는 텔이 있는 닭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이다. 환기, 사육밀도, 사료량 외에 고온스트레스는 가장 큰 적이다. 물을 뿐려주거나, 공기순환, 단열 등을 통해 열사병을 예방하면 외부로부터 유래하여 오는 병중에 38%를 막을 수 있다.

9. 종합위생 방역프로그램을 세운다.

1단계 차단·격리와 2단계의 소독, 음수 수질 분석, 공기중의 낙하세균 등을 분석해 준다. 2단계의 계사오염 차단을 위한 소독을 해주고 3단계로 백신프로그램이 세워져야 한다. 4단계로 크리닝 프로그램을 월 1회 정도씩 가동해 준다.

10. 경영 감각을 살린다.

육용종계, 사료량, 계육 소비량, 경제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입추와 출하시기는 전적으로 수급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할수록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우리농장의 생산성지수를 계절별로 알고 있어야 하며, 가장 약한 생산성 지수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